

행정절차 건너 뛴 익산시 비판

조규대 익산시의원, 행감서 절차 준수 미이행 등 지적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합열, 황등, 함다, 옹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은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익산시의 녹장행정과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 질타했다. 조규대 의원은 첫째로 행정지원과 행정감사에서 익산시 조례의 역할과 중요성을 등한시하는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었다.

조 의원은 “익산시 모든 사무소 주소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 관리해야 하고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별첨에 시청 주소를 비롯해 모든 청사들의 주소를 현행 관리해야 한다”라며, “11월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후 주소지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2차 정례회 조례 개정 시기에 늦어지는 상황을 알고도 익산시가 녹장 행정을 부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익산시가 브랜드슬로건(BL)을 변경할 때도 조례 개정을



조규대 의원

아울러,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익산시가 10월 23일 실시한 구)경찰서를 활용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에 대해서 성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조규대 의원은 “홀로그램사업을 직접화 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필요성은 백번 공감한다. 그러나 지난 9월 익산시와 시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구경할 서 부지는 활용가치가 크나 사업부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아무런 의견 조율이 없었고 더군다나 공유재산변경 동의 없이 기정사실인양 브리핑을 한 익산시는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경할서 부지는 지난 2023년 제25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가 485억으로 가결됐고, 2024년 9월 3일 시의회 간담회에서 335억으로 축소되어 30% 이상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 변경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익산시 담당 부서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나 공유 재산변경동의안 등 정해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이번에도 익산시는 행정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진행한 후 시의회를 통해 뒷수습하게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을 그 조치결과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내년도 사업 및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신용 익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진행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방안 필요성 강조



있다”며 “운행 기준 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 차량 구입 등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40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중인데 대체기사가 없어 기사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체 기사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청년들, 군산대테크노

마켓서 청년 체험 부스운영

군산시 청년들(센터장 오원환)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28일 제15회 국립군산대학교 테크노마켓 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테크노마켓은 국립군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과 교생,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테크노마켓은 문제 해결 능력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기업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관람객들은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창의적 공학 설계 경진대회 △학생 동아리 공연 △체험 부스 운영 등 여러 행사와 부스를 방문하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등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군산시 청년들은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각인 체험 부스를 운영해 청년들에게 기기 활용법을 알려주고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청년들의 공간과 보유기자재,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개인 맞춤형 청년정책, 취업 및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해 센터의 자원과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레이저커팅기 체험은 주사위, 보석판, 미니 사진각인 등의 결과물을 통해 기술의 실용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청년들은 청년정책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재미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동시에 선사했다.

인구대응담당관과 청년들은 앞으로도 양질의 청년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군산이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년들 누리집 (<http://gsyouth.or.kr/>) 또는 대표전화(☎063-471-155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 소라공원 조성 ‘가속화’

공원일몰제 실효 위기 극복 후 공사…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

14만8753㎡ 규모로 도심 속 섬터… 도심 속 녹지 명소 기대

익산시가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마동, 수도산, 모인 공원에 이어 소라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며 도심 녹지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소라공원이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라공원은 1967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50년간 조성이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숙원 과제로 남아 있었

다. 남중동, 신동, 영등동 주민들의 오랜 요청에 따라 익산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해 소라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 익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구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용지를 개발하는데 뜻을 모았다.

2020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약 2년

간의 보상 과정을 마쳤으며, 2022년 초 본격 공원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소라공원 조성에는 약 550억 원이 투입되며, LH의 재정을 활용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대규모 녹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 녹지를 보존하며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추가로 조성해 자연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훼손된 지역에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균형 잡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는 소라공원을 ‘물·구름 공원’ 주제로 조성 중이다. 물과 구름, 나무로 공원이 되살아난다는 의미를 품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흔들다리 구름 숲, 실버마당, 들녘풍경마당, 작은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자격증·어학 공부하는 대학생 ‘주목’

익산사랑장학재단, 익산지역 대학생 대상 도전인재 장학생' 선발

자격증 취득자·어학 우수자 300명 선정… 장학금 50만원 지원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익산지역 대학생들의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전 인재 장학생 선발’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인 어학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중 300명을 선정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 제도다.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지역 대학교 재학생이며, 참여 가능 학교는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한국폴리텍 V대학 익산캠퍼스다.

접수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신청은 각 학교 접수처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익산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은 “도전 인재 장학생 선발이 목표를 향한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자기 계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7년에 설립된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익산사랑장학금 지급, 지역·오픈인재육성사업 지원, 행복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발골 사업을 통해 익산의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26일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먼저, 설경민 의원은 보건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무대상 소독시설 방역을 실시하는 소독업체에 대하여 방역 방법, 약품 등에 대한 부서의 지도 점검을 주문했다.

서동완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관심사인만큼

전북대병원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약품 수불사항 및 재고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윤세자 의원은 공보담당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 홍보포털 운영이 일정별, 분야별로 현행화가 안된 경우를 지적하며 새로 구성되는 포털에는 과거 사진을 포함해 메뉴별 현행화 관리를 철저히 해 줄것을 주문했다.

이연화 의원은 감사담당관 대상 행

정사무감사에서 올해에 실시했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조치가 너무 경미하고 환수 조치 이행도 안되는 등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징계요구 및 처분 건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경식 의원은 인구대응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구성원의 잦은 변동으로 인구대응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를 준수하여 규정에 맞게 철저한 이행을 주문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식품기업 스마트 제조 확대 지원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관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농식품기업 보조사업을 스마트 제조 기계, 설비 지원으로 변경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4개로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농식품기업 스마트 HACCP 지원사업 △창원 식품기업 지원사업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지원사업이다.

먼저 스마트 HACCP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HACCP 인증 상담 대신 중요관리점(CCP)을 점검하는 자동화 설비 및 데이터 전송 장비 등 도입을 지원

한다.

그 외 사업은 스마트 제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을 완료한 농식품기업 희망대상자 심사를 통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채왕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식품산업 전 분야에서 식품 기술(푸드 테크) 산업이 확산되면서 이에 맞춘 관내 농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극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극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당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